

기술개발로 유럽지역 공략

슬리터 CE마크 획득

김종욱 / 대림전기기계제작소 대표

이 리 포장업계에는 오로지 한 길만을 걷고 있는 장인들이 많다. 특히 기계분야에서 두드러진다.

김종욱 대림전기기계제작소 사장도 20여년간 슬리터 분야만을 고집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소리나지 않게 기술력을 다져나가고 있다.

이번 CE마크 획득도 김 사장의 축적된 기술과 무관하지 않다. CE마크를 획득하기까지는 각종 까다로운 절차를 무난히 통과해야 됨은 물론이고 사무실 및 공장운영, 제품에 이르기까지 CE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내수시장만을 바라본다면 외국의 각종 인증제도를 따라갈 필요가 없으나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요구사항을 맞추어야 한다.

대림의 이번 CE마크 획득은 유럽진출에 있어 갖추어야 될 필수사항이고 지난달 이태리에 수출한 슬리터도 CE에서 인증한 제품들로 제작됐으며 바이어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기술 하나만으로 낮은 시장으로 나선 김 사장의 첫 성과이기는 해도 기계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안다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기계 만드는 것이 좋아 시작한 것이 이제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중소기업으로 일궈 놓았지만

아직도 돈을 벌기보다는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 적절한 가격을 받겠다는 것이 김 사장의 지론이다.

담배필터용 슬리터 개발을 시작으로 콘덴서 PET필름용, 증착필름용, 알루미늄 호일, 세라믹콘덴서용, 위생용품 PE필름, 배터리 2차전지용, 라미네이터용, 전자산업용 등 그의 손을 거친 개발품은 무수히 많다.

특히 다른 업체에서 하지 않는 기능성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 사장이 특화제품을 생산하게 된 동기는 신제품을 출시하고 나면 다른 업체에서 카피제품을 내놓아 피해를 보며 기술 경쟁에서 우월한 제품을 만들기로 결심하면서 부터이다.

현재 슬리터와 나이프시스템에 대한 2건의

특허출원을 해 놓고 있는 김 사장은 2001년 법인설립, 2001년 기술연구소 설립, 2003년 벤처기업 인증, 2005년 코스닥 상장 등 기업 성장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차근차근 이루어 가고 있다.

나이프시스템의 경우 교체시간을 기존의 10분의 1로 줄이고 리와인딩방식, 수직형 컨택트 롤 와인딩 방식을 채택해 작업이 편리하고 제품의 질이 우수하며 속도도 20%나 향상시켰다.

김 사장의 기술개발은 그만의 노력도 있지만 유저들과의 끊임없는 대화로 불편 사항을 찾아내어 이를 개선시키는데서 시작한다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수집 등 신기술에 대한 대처와 습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강세를 보이는 콘텐츠용 슬리터는 전자산업의 방향과 흐름을 빨리 파악한 결과로 이에 적절한 기계를 내놓았기에 타업체에서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은 입을 통해 마케팅이 많이 이루어져 영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최근에도 유럽지역에서 제품을 보고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이제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이 김 사장의 생각이다. 내수시장에서의 가격경

쟁은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수출비중을 현재 50%에서 60~70%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인력을 충원하고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작은 기업이지만 알차게 경영해 나가고 뛰어난 사람보다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대립맨으로 만들겠다는 김 사장은 국내 업체간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독주보다는 경쟁상대가 있어야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업체들은 정보교류나 기술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어 기술정체가 심하고 국가적으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국내업체간 협력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이는 김 사장이 갖고 있는 그만의 자신감과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경쟁상대가 자신임을 강조한다.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면 남과의 경쟁에서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실을 강조하며 스스로 기술력을 키워 당당하게 세계시장의 문을 연 대립 김 사장의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 鎮 〉